



일본, 王子제지 신증설 계획 발표 2008년 가동 시작

王子제지가 연산 35만톤의 인쇄용지 설비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총 5백억엔을 투자해 일본 아난市 토미오카 공장에 설치될 설비는 LWC와 Bitokoshi, 중질지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2008년말부터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획은 北越제지 인수 계획 실패의 후속작업으로 이뤄졌는데 토미오카 공장에 설치된 총 연산 30만톤의 노후설비들은 폐기될 예정이다.

토미오카 공장은 총 연산 68만5천5백톤의 9기의 설비들이 설치돼 있는데 최근 王子제지의 구

조조정에 의해 노후된 설비는 폐기되고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王子제지는 공급과잉을 억제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3분기 판지 가격 안정세 중국 공략으로 어려움 심화

아시아 지역의 판지 가격은 원가와 물류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잉공급의 영향으로 가격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판지원지 공급업자들은 펄프와 폐지를 비롯한 원료비와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상쇄하고자 톤당 20~25달러의 가격인상을 시도했지만 결



국 실패했다.

관계자는 중국과 홍콩 바이어들의 구매가 부진했던 것이 가격인상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아시아의 주요 테스트라이너 생산지역인 태국 생산업체들은 테스트라이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신식 설비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중국제품이 저가로 유입됨에 따라 가격인상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 골판지용지 시장의 큰손으로 알려졌던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의 생산업체들은 최근 고품질, 저가의 중국제품에 대항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은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4분기 전망도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계속 유입되어 태국과 인도네시아 생산업체들은 조업중단으로 공급량을 조절하며 가격하락에 대비하고 있다.

많은 아시아 판지 생산업체들은 주요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생산능력 확대로 인해 수입량을 줄이고 있어 어려운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아시아 판지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쿠웨이트, 종이백 포장 기계 틈새 모색
한국 기계류 홍보 중점

쿠웨이트는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어 종이백 포장 기계(Paper Bag Making M/C) 수요전량

을 수입에 의존해 왔다.

쿠웨이트내 종이봉지 생산업체는 4개가 있는데 이 중 Cartoon Industries Ltd社는 쿠웨이트내 최대 종이봉지 제조업체로서 현재 패스트푸드점, 레스토랑, 각종 소매점에 동사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들 주수요처에서 딜리버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종이봉지시장의 50% 이상을 동사가 석권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보면 영등포공단에 해당하는 Shwaikh에 소재한 동사는 Paper Cutting M/C, Paper Printing M/C, Paper Bag Making M/C등의 기계를 갖추고 생산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종이봉지 제조기계는 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수입했다.

이 회사의 현재 종이봉지 생산능력은 연간 약 6억5천톤인데 향후 2~3년내에 생산능력 확장의 일환으로 종이봉지 제조기계의 수입물량을 증가할 예정인데 현재 주로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이 있는 한국산 기계류 수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Gulf Paper Manufacturing Co社의 종이봉지 생산량의 65%가 GCC 국가에 수출되고 있는데 현재 독일 및 이탈리아에서 관련 기계류들을 구입하고 있으나 노후기계들의 대체시 한국산 기계류 수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동사의 종이봉지 생산라인은 2단계로 1단계는 board paper & cartoons, fluting paper, felt paper를 생산하며 2단계로 facial tissues, toilet tissues, kitchen towelling, hand towelling을 생산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현재 종이봉지 제조기계를 주로

미국 및 독일, 이탈리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편 쿠웨이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고려돼야 하며 신규 기계류 수출에 따른 프로모션, 애프터서비스 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브랜드 이미지가 높은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기계에 비해 한국 기계류의 인지도가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가격은 물론 한국 기계류의 홍보 분야를 중점으로 고려해 가급적 유럽제품과 미국제품에 대한 가격대비 성능 차이 등을 강하게 부각해 프로모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애프터서비스 부분도 현지 구매자들이 주된 관심을 부분으로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기계 구매 후 애프터서비스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현지에 에이전트가 부재한 경우에는 부속품이나 소모품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기계의 수명이 단명하는 경우들을 예로 들면서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크다.

이런 애로사항 때문에 이런 애프터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유럽기계에 한국 기계류의 경쟁력이 밀리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한국기계가 현지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현지 에이전트를 지정해 에이전트를 통한 종합적 판매가 필요하다.

쿠웨이트 종이봉지 제조기계 시장규모가 크편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상들은 시장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독점권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해서 유력한 바이어를 독점 에이전트로 지정해서 시장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

쿠웨이트내 종이봉지 생산업체들에 의하면 종이봉지 제조기계들은 주로 미국 및 유럽에서 수입되어 왔으나 최근 한국의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확대에 따른 한국산 기계류의 수입물량 확대에 한국산 기계류에 대한 이미지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품질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쿠웨이트내 종이봉지 생산업체들은 앞으로 종이봉지 제조 노후기계들의 교체시 한국산 기계류 수입선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종이봉지 제조기계 수입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요소로는 가격, 품질, 보증기간(최소1년), 애프터서비스(부품공급 및 기술 서비스포함), 원산지표시, 쿠웨이트 전기제품 규격준수(240V, 50Hz) 등이다.

멕시코, 제지 기계설비 수입 의존 제지시장 5% 성장 기대

멕시코 제지산업은 국내산업 전반에서 엄청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충족할 만한 생산설비, 원부자재 등이 부족해 필요한 원부자재는 물론이고 이들을 생산하는 기계설비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6년 멕시코 제지시장은 지난해보다 더욱 성장해 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2007년에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멕시코 제지산업의 주요 고객은 산업 전반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주 고객은 역시 멕시코경제의



주축 가운데 하나인 임가공업(Maquiladora)과 식품산업, 농업 및 가전제품 제조업이다.

한편, 2005년 1/4분기 그래픽 디자인 및 페인팅 마켓에 붐이 불면서 종이산업 역시 호황을 누렸다.

멕시코 제지산업계에서는 완제품의 기계를 수입하기 보다는 롤, 펄프, 밸브, 프레스 등을 각각 수입하여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조립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멕시코 제지산업은 1차 fiber(27.7%) 보다는 가공 fiber(72.3%)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 제지 재활용부문에 있어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관련자는 지적하고 있다.

멕시코 제지산업 상공회의소(Mexico's Paper Industry Chamber)는 최근 중국의 40개 제지플랜트 신설로 저렴한 제지상품이 멕시코 시장에 범람하면서 멕시코 제지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멕시코 종이, 펄프뿐만 아니라 제지산업용 기계시장의 주요 공급국가는 미국으로 멕시코는 캐나다에 이어 미국 제지산업의 제2의 수출대상국이다.

그러나 지난 해에는 유럽 경제 공동체로부터 제지플랜트가 수입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참고로 한국으로부터의 제지플랜트 수입은 아직 전무한 상태로 일부 제지생산용 기계 부품이 수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멕시코는 64개의 제지공장이 셀룰로오스를 가공하거나 종이를 생산하고 있으며, 7개의 공장에서 셀룰로오스 가공하고, 종이를 생산하고 있으며 57개의 공장에서 종이만 생산하고 있다.

지난 해 멕시코 종이 생산규모는 전년대비 2.9% 성장, 4천3백24천톤을 생산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 가운데 필기류 종이는 전체 생산의 4.4%, 판지는 전체의 2.3%, 보드지(cardboard)는 전체의 1.15%, 화장지는 5.6%, 그리고 특수종이가 21.9%를 차지하고 있다.

제지플랜트 시장은 이미 미국이나 유럽기업들이 선점하면서 브랜드 네임은 물론이고 품질면에서 오래전부터 인정 받아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이미지 및 기술력 홍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많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부문으로 꾸준히 바이어를 관리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은 최근 경제활성화 및 정부의 산업시설 현대화 정책에 따라 기계류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시장경쟁 심화에 따른 품질제고 노력으로 인해 포장기계류의 사용 역시 늘고 있는 상황이다.

파키스탄 플라스틱 포장산업은 연간 15%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생산능력은 6천2백42억톤 수준으로 추정되며 고용규모는 4백만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파키스탄 시장에서는 대만 포장기계류가 저렴한 가격 및 A/S 만족도를 앞세워 가장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제품의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이며,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약 4%대에 머물러 있다. ☞